

조경의 환경윤리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도덕적 위치

- 유진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를 중심으로 -

오창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Critical Analysis about Environmental Ethics and Mora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 Focusing on Eugen C. Hargrove's 'Weak Anthropocentrism' -

Oh, Chang-S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the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applies environmental ethics in order to secure an ecological status. However, environmental ethics that focus on nature conservation excludes landscape architecture as artifacts. In the process, it is hard to identify what landscape architecture insists on as the middle posi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Rather, landscape architecture pretends to be an 'agent of nature' and pushes the traditional moral values 'for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anthropocentrism mora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critical analysis. Hargrove's weak anthropocentrism' of several environmental ethics branches accepts natural aesthetics(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as an ethical virtue. But environmental ethics makes landscape architecture a critical target. For that reason, this study looked into critical contents and objects that in a position to moral, aesthetic and landscape architecture. Critical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nature is an absolute as an aesthetic and moral value, but landscape architecture is an imitation and takes a relaxed attitude about nature. Second, nature is full of aesthetic substance because it is self-creative, but landscape architecture is designed nature covered human flaws through imagination.

Third, environmental management granting techniques in nature generate a moral nihilism. As an argument, environmental ethics overlooked the moral practices of landscape architecture beyond nature another moral aspect of creation and the imagination—and moral aspec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s 'care' because they rule out 'moral autonomy' and simplify what is considered 'good.' As a result, conservation cannot be the only virtue why the problem of nature in reality cannot be separated from human life. The mora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based on a 'good life' is more appropriate under anthropocentrism than as a middle position.

Key Words: Right of Nature, Environmental Aesthetics, Anthropocentrism and Nonanthropocentrism, Moral Practice, Good Life

Corresponding author: Chang-Song Oh,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10-9611-3730, E-mail: changsong@hanmail.net

국문초록

조경은 스스로 환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윤리를 이론으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환경윤리는 자연 보전에 집중한 나머지 조경을 인공물로 취급하며 도덕 대상에서 배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경은 인간과 자연의 중도적 입장을 주장하나 도덕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오히려 조경은 ‘자연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인간을 위한’ 조경의 전통적 도덕관을 밀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윤리의 비판적 해석을 통해 인간중심으로서 조경의 도덕적 위치의 재정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환경윤리의 여러 분과 중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조경처럼 자연미학을 윤리적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상이한 자연관 때문에 환경윤리는 조경을 비판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하그로브의 조경 비판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도덕적, 미학적, 조경적 입장에서 살펴본다.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은 존재 자체로서 미적이고 도덕적인 반면 조경은 모조품으로서 자연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취한다. ② 자연은 자기창조적이기에 완전한 미적 실체인 반면 조경은 상상을 통해 인간적 결함을 감추는 설계된 자연이다. ③ 자연에 기술을 부여하는 환경관리는 무의미하기에 도덕적 허무주의를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환경윤리는 ‘도덕적 자율성’을 배제하고 ‘도덕적 선’을 단순화함으로써 조경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을 넘어선 도덕적 실천 능력, 창조와 상상의 폭 넓은 도덕적 의미, ‘돌봄’으로서 환경관리의 도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서 자연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보전만이 미덕이 될 수 없다. 또한 조경은 ‘선한 삶’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적 위치보다는 인간중심적 도덕적 위치가 타당하다.

주제어: 자연의 권리, 환경미학,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중심주의, 도덕적 실천, 선한 삶

1. 서론

1. 오랜 시간동안 조경은 자체적으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철학은 조경을 윤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데이비드 쿠퍼(David E. Coop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조경은 순수예술에 비해 미적 주체가 없다. ② 조경은 선한 삶(good life)으로서 도덕적 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③ 환경윤리가 야생에 집중한 나머지 조경이 윤리적이라는 것에 이색하였다고 설명한다(Cooper, 2006:8-9). ①항과 ②항은 미학과 윤리학분야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③항은 우리가 생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환경윤리를 선택하였던 만큼 스스로 이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

2. 사실 조경과 환경윤리 사이에는 개발과 보존, 문화와 자연, 사회와 생태, 장소와 비장소라는 이질적 괴리가 있다. 자연만이 윤리이고 도덕이라는 강박 관념과 인간 환경을 조정·개선하려는 도덕적 충들에서 지금까지 조경은 모호한 중립적 자세를 취하였다. 도시환경계획학자인 티모시 비틀리(Timothy Beathley)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인간중심과 비인간중심 사이에 있는 “중간 범위의 윤리 원칙(middle range ethical principals)”을 주장한다(Beathley, 1994:26-27). 조경학자 이안 톰슨(Ian H. Thompson)은 환경윤리의 이론을 기반으로 조경의 위치를 찾고자,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조경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²⁾, 현대의 조경은 중도적 위치로서 ‘생태적 인본주의(Ecological Humanism)’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Thompson, 1998). 조경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유명 조경가들이 생태적 과정을 적용하려 노력하였지만, 지속가능한 힘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관 경험은 ‘돌봄’으로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생태중심적 세계관 사이의 중간적 위치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Meyer, 2008: 20-21).

3. 위 내용으로 보아 조경은 환경윤리부터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은 도덕적 중간위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중도적 입장이라는 조경의 모호한 윤리적 위치에 의문을 던진다. 중도적 위치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교우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윤리와 조경의 접점을 강제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자연과 윤리의 관계에 있어 각자의 입장과 위치를 해석함으로써 조경의 본질과 일치할 수 있는 도덕적 위치를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4. 연구의 범위는 현대 환경윤리학의 대표적 흐름이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진 하그로브(Eugene C. Hargrove)의 ‘약한 인간중심주의(Weak Anthropocentric)’를 중심으로 다룬다³⁾. 그의 환경윤리는 환경미학을 배경이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조경과 동일한 선상에 있으나, 조경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본 연구는 ‘약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검토를 필두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환경윤리가 조경을 비판하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이에 대한 조경적 반

론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제시한다. 셋째, 환경윤리의 한계와 함께 조경의 도덕적 위치를 제시한다.

II. 환경윤리의 개요와 약한 인간중심주의

1. 환경윤리의 개요

환경윤리는 1960년대 후반 물질 성장에 의한 생태 파괴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서구의 '반문화적 운동'이다(Zimmerman, 1993: v-vi). 초기의 환경윤리는 개체론에서 출발하는데, 인간 중심이었던 윤리를 지구 생명체까지 도덕적 지위를 확장시켰다. 상처 입은 돌고래의 고통, 사냥하며 살육되어진 동물들에 대한 죄스러움 등 생명 객체에 대한 인간의 감정 이입을 통해 생물에 대한 개별적 배려와 복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개체론은 생명 자체를 '도덕적 배려(moral consideration)' 대상으로 삼아 인간에 의해 특정 대상만을 다루거나 변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이유로 버드 캘리코트(J. Baird Callicott)는 개체론은 진정한 환경윤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Callicott, 1993:3). 그는 개체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1887~1948)를 '현대 환경윤리의 아버지(Callicott, 1980:311)'라 칭송하며, 그가 1947년 「미국정원협회(Bulletin of Garden Club of America)」에서 주장한 '대지 윤리(Land Ethics)⁴⁾'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론을 주장한다. 전체론은 생명객체에서 자연 전체로 광역화 한다. 그리고 생태계 전체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로 자연 보존을 중요한 도덕 문제라고 선제한다. 개체론과 전체론은 대립관계를 이루기도 하지만 경제적 동기에 의한 생명 파괴를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이타의식, 생물 평등주의, 지구 공동체 의식과 책임·의무라는 윤리적 실천 과제를 남겼다.

최근 환경윤리는 자연에 대한 인간 참여의 유무에 따라 비인간중심주의(nonanthropocentrism)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 구분한다. 대다수 환경윤리는 비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⁵⁾를 반대한다. 특히 생태학의 이념적 지위를 '하나의 저항 운동'로 받아들여 급진주의적 생태 운동을 전개한다. 반면 인간중심주의는 오로지 인간만이 윤리적 주체일 수 있으며 도덕적 책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비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윤리관의 연장선에서 자연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철학이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연의 가치는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은 인간 이해 관심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하고 있다.

2.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와 내재적 가치

1992년에 기고한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의 내재적 가치(weak anthropocentric intrinsic value)」라는 논문과 1988년에

쓴 「환경윤리학의 기초(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라는 저서는 기존 이분법적 환경윤리를 문제 삼는다. '약한 인간중심주의'라는 용어는 하그로브 이전 브라이언 노튼(Bryon G. Norton)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환경 의사 결정의 기초 역할을 위해 인간중심주의적인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제시한다⁶⁾. 그러나 캘리코트는 '내재적 가치'란 자연의 '자기 현실화(self-realization)'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을 제외한 '내재적 가치'의 전개를 주장한다(Callicott, 1984). 폴 테일러(Paul W. Taylor) 역시, 모든 종은 본래의 가치를 부여 받았기에 '내재적 가치'는 인간중심주의의 '도구적 가치'와 대별되는 기준으로 삼는다(Taylor, 1986). 기존 환경주의자들의 논쟁은 자연에 대한 도구적 논쟁에 불과하기에 하그로브는 다른 '내재적 가치'에서 찾고 있다. 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는 자연 본래의 가치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치 자체를 인간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인간중심주의 가치 이론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Hargrove, 1992). 첫째, 개인에 의한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오를 일으킨다. 둘째, 가치란 인간 의식에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인간화에서 떠날 수 없다. 셋째, 자연에 대한 모든 가치는 인간의 주체적 감성에 의한 것으로, 인간에 의해 보호 받지 않는다면 자연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예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사고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이유로 자연의 도구화라는 전통적 인간중심주의와 차별하고자 '약함(weak)'이라는 단어를 첨부한다.

III. 약한 인간중심주의의 조경에 대한 비판

개체론이 팽배하였던 1970년대에, 서양 전통 윤리학을 기반으로 환경윤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경이 윤리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고개를 들기도 하였다. 당시 존 패스모어(John Passmore, 1914~2004)는 환경윤리가 서양 철학의 기반과 모순되지 않으며, 철학적 입장에서 조경을 윤리적 범주에 포함시킨 몇 안되는 학자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생태적 문제와 서양의 전통(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Ecological Problems and Western Traditions)」이라는 저서에서, 자연과 협업하는 서양 전통 윤리관을 '집사로서 의무(stewardship)'라고 지칭한다. 그가 말하는 '집사로서 의무'는 자연의 경직된 상상력을 넘어 여가(recreation)뿐만 아니라 에덴 정원을 재창조(re-creation)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사례로 풍경화식 정원은 자연을 통해 우리의 기원을 즐길 수 있고, 맥하그(Ian McHarg, 1920~2001)식 계획은 자연과 함께 하려는 디자이너의 노력이고, 국립공원은 자연에서 여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

한 정책이라고 말한다(passmore: 1974). 이것은 전통적 인간중심 윤리관에 조경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이었다. 반면, 하그로브는 조경을 야생 자연과 대치되는 인공적 산물이기 때문에 윤리적 범주에서 배제한다.

1. 자연의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하그로브의 환경윤리는 자연에 대한 '미적 태도'에서 출발한다. 환경윤리학의 기준으로 자연미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풍경화, 자연시, 자연사 과학 등과 같이 일반인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양 전통철학은 합리적 구조로 자연을 환원하고 상징적으로 취급하는 재현적 사고와 기하학적 배경 때문에 야생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연미는 인간의 손이 가지 않은 순수한 존재이므로 과학적 탐구까지 병행함으로써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순수한 존재만이 인간으로부터 보호받고 스스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답지 못한 자연은 제거되어도 되는가에 대한 반문에 대하여, 자연의 미적 선호는 있을 수 없어 무차별적으로 자연미를 선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논리는 "자연은 그것이 지닌 자연스러움만이 아름다움이며 미학적으로 부정적인 어떠한 성질도 가지지 않는다"는 알렌 칼슨(Allen Carlson)의 '긍정 미학(Positive Aesthetics)⁷⁾'에 기반한다. 칼슨의 이론은 자연은 인간의 조절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부정적 미적 판단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Carlson, 1984). 이어서 하그로브는 긍정미학의 연장선에서 자연에 대한 자세를 '존재론적 미적 태도'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물은 정원의 표준서에 의해 아름다워선 안된다(Callcott, 2008:112-113)는 공통된 생각으로 미적 선호와 강요는 진정한 자연미를 탐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그로브의 조경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① 비정형식 조경술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함에 있어 야생 환경에 대한 감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정원 애호가들로 하여금 야생적인 미의 기준을 수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② 비정형식 조경의 수목은 자기 완성적이고 자기 조직적인 존재로 승격되었으나 이들은 감각에 의해 경험되지 않아 미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윤리적이진 않다고 비판한다(Hargrove, 1988:146-197).

2. 하그로브는 조경을 윤리적으로 배척하기 위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상상력을 지적한다. 그는 자연의 창조성은 설계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인간의 창조성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가 말한 자연의 창조성은 '자기 창조(self-creative)'와 '무차별적 창조'이다. '자기 창조'는 자연 스스로 창조하는 것으로 자연이라는 예술 원본을 훼손하지 않은 순수함에 미적 가치를 두고 있다. '무차별적 창조'란 모든 자연은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예술의 진품을 유지함을 뜻한다. 즉, 인간의 예술은 상상적 재구성에 의존함으로써 모조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를 문제 삼는다. 또한 인간의 창조성과 상상력은 자연의 직접 대상보다 간접대상에 의존함으로써 대상 파괴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복제품을 양산하여 원본의 미적 경험으로 둔갑하는 우를 범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연의 복구·복원은 자연의 원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자연이 훼손되었을 때 자연 스스로 치유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상 조경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은 자연을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적 과정에 발생되어진 재현물이자 인간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상상을 도입한 하급대상이다. ② 자연을 닮으려는 조경은 복원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하려 하지만 이는 모조품에 불과하여 복잡한 생태적 관계망을 치유할 수 없다. ③ 조경은 자연과 같은 '자기 창조성'이 결여되어 지속적인 노동이 필요로 하는데 이때 자연의 형태라고 할 수 없는 기하학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인공화시킨다.

3. 하그로브는 환경관리는 '치료상의 허무주의⁸⁾'라고 명명함으로써 이것은 자기 파괴적 행위이자 불필요한 치유라고 지적한다(Hargrove, 1988:253-303). 하지만 '허무주의'가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 일반화라는 점, 환경 관리자가 환경을 외면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점, 생태학적 발전과 역행한다는 문제를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하그로브가 환경관리를 거부한 것은 레오폴드(Leopold, 1933)의 연구 「사냥 관리(Game Management)」에서 나온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정과 같은 '요인조작관리(factor manipulation management)의 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인위적인 조건에 있을 뿐이지 자연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여기서 그는 ① 환경관리를 환경조작으로 해석하며 야생 환경을 종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자연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태학적 기술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인간중심의 가치 선호 현상이라고 비판한다. ③ 환경에서 '치료상의 허무주의'의 문제점보다 환경관리의 인위적 개입에 대한 문제를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류 유인 식재기법 또는 동물 서식처 조성과 같은 조경 생태공학을 환경조작의 도구적 입장으로 해석하여 자연계의 관리를 위한 풍경 조경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Hargrove, 1988:288-289).

IV. 약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론: 조경의 윤리 쟁점

이상에서 보여진 하그로브의 환경윤리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가치판단을 주장하면서도 인간계와 자연계를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Mun, 2004:91, 93). 그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모호한 경계 선상에 위치한 조경을 인공물로 취급하여 자연이 아니면 윤리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논리를 전개한 책 원제목 중 '기초

(foundation)'라는 단어에서 보았듯이, 오직 자연의 존재만이 윤리적 당위성을 갖는다는 토대주의(foundationism)⁹⁾ 또는 전통적 규범윤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그는 기계론적인 서양의 전통 철학을 비판하며 자연이라는 새로운 도덕적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오히려 전통철학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1. 자연의 존재론적 미적 태도

하그로브는 자신의 환경윤리에서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선’이란 존재해야 할 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거나 보존해야 할 의무는 아름다움이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나온다(Hargrove, 1988:353).”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존재만이 도덕적으로 선택인가?”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다. 대지에 썩어가는 사체, 태풍과 지진 같은 자연 재해, 굶주림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자 등의 모습은 인간의 자연 침해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 자체의 현상이기도 하다. 자연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지키기 보다는 파괴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 여기서 자연은 도덕적으로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9:238). 따라서 오직 자연 존재만이 윤리적 선을 찾을 수 있다는 존재론적 논의는 ‘도덕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윤리적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 개체론 환경윤리학자이자 동물해방론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조차도 “(도덕적으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는 그 용어가 지금까지 의미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참된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Singer, 1973:51)”라고 말하며, 윤리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거부하였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존재를 자연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 도덕적 판단을 저해하는 속성을 지니기에 도덕적 사실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연을 예술작품으로 간주하는 하그로브의 관점에 맞춰 예술의 존재론적 논의 역시 작품의 고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의 자연미 감상과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해석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 Georg Gadamer, 1990~2002)는 작품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순수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연관성을 끊어 버리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는 진정한 예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상에서 파생된 미메시스에서 예술 작품의 ‘존재의 미’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다(Kim, 2011b:128, 132). 하그로브의 자연미 감상에서 재현·모방·반복을 거부하는 것과

반대 입장이다.

약한 인간중심주의의 존재론적 이견에 비추어, 조경은 참된 자연이 아니고 참된 자연을 실현하지 못하기에 도덕적으로 선택한 대상이 되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조경에 사용되어진 수목과 자연상의 수목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조경은 자연이 추구한 모든 아름다움 중 취향과 선택을 통해 자연화 또는 자연처럼 보이는 공간을 추구한다. 이 부분에서 ‘무차별적 자연미’와 ‘완전한 자연’을 추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숲을 가꾸기 위한 간벌, 관리상 필요에 의한 초지의 인공 방화, 비위생적이거나 산사태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자연지역의 기반 안정, 환경훼손의 경각심을 알려주는 대지 예술 등은 인간의 시각에 비추어 긍정적이지 못하기에 행하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해야 할 것은 토지형질을 변형시키기 위한 간벌, 부주의 또는 놀이로 인한 방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원과 사업, 작가주의적 대중성에 힘입어 인위적 환경훼손을 통해 이루어낸 대지예술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마저 도덕적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추론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존재(is)’의 진술만을 포함하는 도덕적 ‘당위(ought)’는 문제가 있다(Kim, 2011a:145). 그 이유는 존재만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에 현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과 함께 하는 인간에 있어 오직 자연만을 위해 그들의 삶과 현실에 등을 돌린다면 환경윤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당위성은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다양성을 배제한 하그로브의 존재론적 논의는 도덕적으로 미학적으로 자율을 제거하고, 현실적 입장에서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다. 무엇보다도 자연 존재만이 미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생각만으로 조경의 도덕적 대상의 부당함을 판단하는 것은 환경윤리의 영역을 협소하게 한다.

2. 상상적 창조성의 거부

하그로브는 상상과 창조는 인간 능력의 결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자연을 설계하는 것은 자연이 불완전하다는 오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한다.

“상상적 창조성이 인간적으로 형태화하는 아름다움을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이유는 ... 신과 자연의 창조능력과 비교해 볼 때 열등한 인간의 창조능력의 결합을 감추기 위해 상상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Hargrove, 1988:344).”

여기서 우리는 상상과 창조가 미적인 것만의 문제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필요하다. 상상의 어원인 ‘imago’는 모상, 복사, 유사성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서구 전통철학에서는 오랫동안

평가 절하하였다. 하지만 상상의 정의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스번(H. Osborn)은 인간 경험을 새롭게 구성하고, 가상적 상황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타자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리코이어(P. Ricoeur)는 상상의 수행기능은 경험을 재구성하고 경험안에서 서로 연관 지어 개인들 특정 상황의 도덕적 평가와 제한된 실제적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hin, 2012:189-190). 이러한 정의로 보아 상상은 단지 미적 창조와 관련된 인간 정신만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적 입장에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윤리학은 규칙이 지배하는 관심사들에 의해서만 틀 지워지지 않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능력(Kim, 2006), 주어진 상황안에서 여러 대인들을 상상적으로 분열하여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는 능력(Johnson, 1993)으로 도덕과 상상력의 합목적 관계를 강조한다. 이를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이라 불리는데 오히려 현대 윤리학의 입장에서 상상은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자연미 입장에서 상상의 해석은 무엇일까? 피셔(Friedrich Theodor Vischer, 1807~1887)는 자연미와 상상력의 대립을 부정한다. 그는 자연미는 경험에 의한 것으로 '미'란 주관의 자유로운 상상에 근거하여 스스로 구성하는 까닭에 예술미와 자연미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주장한다(Kim, 2001: 13). 이후 자연미학은 미적 직관의 응용사례에 불과하다고 부정하면서도, 현대에 들어 자연의 참여와 경험을 강조하거나, 신비로운 감각적 경험으로 인식하거나, 자연 대상을 인공화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다양한 환경미학 모델이 제시되어지고 있다¹¹⁾. 환경미학이 윤리학의 일부라고 생각한 마르틴 제엘(Martin Seel)은 '아름다운 자연'이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위한 중심적 장소라고 한다.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만든 장소인 자연의 보호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정치적으로 존중하는 명령이라고 말한다(Kim, 2001:99). 언뜻 보면 환경윤리와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자연보전 이전에 '개인의 삶'이 전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엘은 상상이 우리에게 삶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일깨워 준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Kim, 2001:100). 따라서 자연을 보전하는 것은 상상 활동의 일환으로 하그로브가 생각하는 상상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상은 단순한 예술 활동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참된 도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도덕적 실천이다. 여기서 상상은 더 이상 인간 활동의 결합도 인간과 자연의 창조능력 우위를 가리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자연의 창조력은 인간의 삶까지 판단하지 못하기에 인간의 창조보다 떨어진다는 역 논리가 발생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경적 유비로 돌아와 맥하그가 시도한 보존과 개발공간의 지도 중첩법은 자연과 인간 삶을 고려한 상상의 활동이고 도덕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

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동원되었기에 조경을 도덕적 대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대 조경의 흐름을 읽지 않은 하그로브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그로브는 설계되어진 자연인 조경은 '자기 창조성'이 결여되고 자연을 모사하는 하급 예술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조경의 자연 모사가 하급 예술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가다머의 말처럼 미메시스가 예술 '존재의 미'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이기에 조경 예술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김문환의 말처럼 자연미학을 통해 오히려 정원 예술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Kim, 2001:102). 오히려 하그로브의 존재론적 함정은 오히려 도덕적인 것만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 도덕주의'를 내포함으로써 도덕만이 전체가 될 수 없는 현대 가치론에 부합될 수 없다(Park, 2007). 즉 도덕적 가치관이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관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

3. 환경관리의 '치료상의 허무주의'

하그로브는 환경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환경관리는 '허무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레오폴드는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냥과 같이 여가활동의 소비물로 제공하려는 목적은 독립적으로 조작성될 수 있는 일련의 요인(factor)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조작은 문명화를 통한 자연의 지배를 나타낸다. (Hargrove, 1988:278)."

하그로브에 있어 이 과정은 자연의 '개선시킬 의무를 거부(Hargrove, 1988:359)'하는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는 환경관리를 동물의 개체수 조정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집중하고 있다. 그가 참고한 레오폴드의 내용은 1900년 초 개체수 조정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냥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출발한다¹³⁾. 오히려 환경관리를 생명체의 상해에 의한 '고통'으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해석하며, 지극히 고전적 환경관리방법에 한정시킨 것이다. 현대의 환경관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렛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국립공원 자체만으로는 환경보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장료 징수, 복권 판매 등과 같은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개입이야말로 '도덕의 기본적 확장'으로 "행위의 도덕성은 수행하는 시점에서 시스템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Hardin, 1968:1243-1248). 환경윤리학자이자 경관생태학자인 요안 이버슨 나쉬어(Joan Iversen Nassauer)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조경의 환경관리를 예시하고 있다.

자연보존지역과 사유지의 경계에서 더 많은 자연 착취를 하는 관계로 공원을 완충공간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녀는 이를 '경치의 미'와 '경관의 돌봄'을 결합한 것으로 경관의 생존전략으로써 도덕적 인간 의지를 강조한다(Nassauer, 2008: 365-368). 이 두 사람의 말은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현대의 가치관에 힘입어 자연의 가치관에 인간의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는 확장된 도덕관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례는 전문 분야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자연의 생존은 인위적 침해를 하지 않고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는 도덕적 경계대상이 될 수 없다.

이때의 환경관리는 자연에 대한 '돌봄'이라는 도덕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원을 도덕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철학자 쿠퍼(David E. Cooper)는 돌봄은 이기심을 버린 순수한 실천, 삶에 기여하는 도덕적 취미, 미래를 위한 삶, 외부의 것과 경험하고 감상하는 것, 자연과 공조하는 자세로서 선한 삶(the good life)이라는 도덕적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다(Cooper, 2006).

생태적으로 문제시 되는 자연 대상을 구경꾼 자세로 바라보는 것은 '환경의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자연과 환경문제에 있어 상황과 시점에 맞는 개입이야말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하그로브는 자연의 자기 치유성을 너무 믿는 나머지 방치로 인한 자연의 비극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조경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방치된 자연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자연 보전은 자연 존재만으로 되기보다는 자연 안팎의 돌봄을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환경윤리에서 조경의 위치

하그로브는 자연 보전은 도덕적으로 보호해야할 선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을 사람을 위한 즐거움의 도구적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자연 자체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과 인간의 경계영역으로서 조경에 대한 비판은 자연만의 권리를 더욱 간곡하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① 자연은 존재 자체로서 미적이고 도덕적 권리를 갖지만 조경은 자연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② 자연은 자기창조적이기에 완전한 미적 실체인 반면 조경은 인간적 결합을 감추는 상상재 또는 설계된 자연이다. ③ 자연에 대한 환경관리는 무의미하므로, 기술을 자연에 부여하는 조경은 도덕적 허무주의를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하그로브는 환경윤리는 현시대의 새로운 윤리담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의 규범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① 자연 존재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 주장은 조경이 추구하는 자연의 도덕적 실천행위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다. ② 상상을 제거한 미적 태도는 20세기 이전의 조경양식사에만 의존한 나

머지 포괄적인 조경의 예술적 자연적 가치를 간과한다. ③ 개체수 조작에만 치우친 환경관리의 협소한 식견은 광범위한 조경의 환경관리 능력을 일축시키고 있다. 여기서 약한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도덕적 자율성'과 '도덕적 선'을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환원되어진 환경윤리의 입장에서 조경이 취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사이의 모호한 태도 또는 중립적 위치라는 의견에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보전을 포함해 자연에 대한 도덕적 실천은 인간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상상은 자연의 예술화라는 상반된 도덕적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상상은 인간의 삶을 자연과 조율한다는 점은 작금의 흐름이다. 현대 윤리에서 선은 더 이상 단순명제가 아니라 종합명제이다.

중립주의의 모든 형태는 결국 상대주의에 붕괴된다(Kim, 2011a: 148). 도시에서의 조경과 자연에서의 조경은 다르다. 상황에 따른 타협적인 입장이 중립적 입장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주장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자연의 문제는 더 이상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환경주의자들이 개인의 보건과 소비행위를 환경문제와 관련지우며 동떨어져 보이는 두 담론을 연결하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환경주의의 노골적인 인간 대립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적 위치는, 어떤 상상의 '충돌'에 봉착하여 잘못된 선제 행위와 절박한 재앙에 직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Harvey, 2000:38, 291-351). 결국 자연의 모든 문제는 인간 삶과 뿔 수 없기에 환경윤리의 협소한 사고만으로 자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보전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 살리 샤우만(Sally Schauman)은 자연 보전이 조경의 성스러운 영역이라고 강요했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stewardship)¹⁴⁾'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자연을 우리의 일상과 너무 멀리 보았기에 자연 보존이 경관의 남용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Schauman, 1997:239-262). 자연은 신화적 윤리영역이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바랄 필요성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중심주의의 도덕적 위치를 같음하는 것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도덕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자연을 살리는 모든 행위로서 무개입, 소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으로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 조경은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존재라는 상이한 관계의 다리를 놓는다. 그러나 자연이 인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비인간중심주의 도덕 윤리는 사실 존재할 수 없다. 환경윤리는 도덕적 대상으로서 그 지위를 자연까지 확장시킨 것이지 도덕적 주체까지 자연에 넘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티모시 비틀리나 이안 톰슨이 주장한 '중간 범위의 윤리 원칙'은 이러한 도덕 대상과 주체의 혼돈에서 나온 결론이라 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생태적 조경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환경윤리를 습득한 결과 조경의 윤리적 위치는 자연과 인간의 중간에 있다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비록 하그로브가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인간이 판단하여 한다는 완화된 주장을 하였음에도 자연을 위한 것은 보전만이 도덕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완전한 자연보다는 방치의 결과로 남고 있기 때문에 보전을 윤리적 명제로 하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무리가 따른다. 지금까지 하그로브의 조경비판을 반론 삼아 조경의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였다면, 본 결론은 자연을 도덕화 하는데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며 "조경이 왜 인간중심이어야 하는지?"로 마무리한다.

첫째, '삶의 가치'라는 부분에서 입장 차이이다. 삶을 위해 자연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가치치는 부분에 있어 환경윤리는 인간의 '삶'은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는 부도덕성의 근원으로 삼아 이를 배척한다. 하지만 조경은 인간 삶과 자연을 교우하는 관계로 포괄적 도덕범위로서 삶의 가치를 인정한다.

둘째, 자연에 대한 미학으로서 입장 차이이다. 환경윤리는 자연을 도덕화 하는 과정에서 규범적 이념으로 삼아 자연을 정태적 예술작품으로 취급한다. 반면 조경은 상상과 창조를 통한 생태미학으로서 동태적 자연미를 탐구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입장차이다. 환경윤리는 노동이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키고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조경에 있어 노동은 도덕적으로 미적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지니고 '선한 삶'을 실천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조경은 자연을 다룬다고 하여도 인간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도덕적 대상으로 배척은 합당치 못하다.

과거 '인간을 위한(for people)'것으로 진보한 조경은 어렵잖아 1970년 이후 생태적 가치로 치우쳐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파하고자 디자인으로 조경을 강조하거나 창발적 생태디자인이라는 모호한 페러다임으로 조경의 생태 일면성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점점 생태계획화 또는 생태공학화 하는 흐름속에서 조경은 중립적 위치가 아닌 '자연의 대리인(agents of nature)'으로 자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생태조경의 근원적 배경을 제시해준 환경윤리를 이면화(裏面化)함으로써 조경의 본의는 도덕적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임을 되짚고자 한다.

주 1. 1950년대 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조경이 생태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윤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리노이(Illinois)대학교는 히데오 사사키(Hideo Sasaki, 1919~2000) 교수의 설득으로 자연 과학 기반의 조경 교육을 도입하였고, 하바드(Harvard) 대학은 생태적 분석과 디자인 접근을 토론하기 위해 환경윤리의 전신인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Land Ethics)'를 주요 토픽으로 다

루었다. 피터 워커(Walker, 1994: 262)는 당시를 회고하며 "1950년대 소수의 조경가만이 레오폴드의 경이로운 책(Sand County Almanac, 1949)을 읽었음에도, 전문가들은 곧 생태적 균형과 자연 자원의 책무에 관한 레오폴드의 관심사에 매료 당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반은 맥하그의 명저로 이어지고, 1970년대 브리안 하켓(Brian Hackett)은 미적 만족감을 조경의 부산물로 여기며 생태적 접근의 우위를 주장한다. 조경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환경윤리는 조경을 '생태적 극단주의'로 변모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 주 2. 그는 시대별·대륙별로 다양한 조경의 환경윤리에서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였다. 1960년 환경시대 이전 영국은 환경의 미적 훼손을 경계하며 시각적 개선을 위한 보전주의적 자세를 취한 반면, 미국은 인류중심적 지배적 사고에 의해 미와 기능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이후 1980년대 환경윤리의 고착은 조경이 생태적 가치를 높게 봄으로써 다양한 생태 기술적 관점으로 전환하였다고 말한다.
- 주 3. 송명규는 기존의 급진론적 생태철학과 달리 온건한 입장의 뜻으로 '유연적 인류 중심론'으로 번역하였다(Song, 1994). 하지만 하그로브의 환경윤리가 뜻하는 진정한 입장은 가치 판단자로서만 한 정하였을 뿐 보전주의 철학 이론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저서인 「환경윤리학의 기초」의 원문 번역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김형철의 번역에 따라 '약한 인간중심주의'라고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다.

하그로브는 1979년도에 환경윤리학회에 영향력 있는 학회지인 「환경윤리학(Environmental Ethics)」을 창간하였으며, 그의 저서 「환경윤리학의 기초(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 1988)」는 이 분야의 원전으로 뽑고 있다(Grange, 1992:175).

- 주 4. 알도 레오폴드가 '대지윤리'를 주장하기 이전 '보전윤리', '생명토지관', '생태적 양식' 등을 이야기하였다. "정부기관의 보전 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토지이용은 자신의 생태학적 양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연설을 통해 '대지윤리'라는 단어를 확산시켰다(Song, 1998).
- 주 5.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란 자연을 인간을 위한 자원가치로 바라보는 입장 또는 인간의 이해 관심이나 기호로 환원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 주 6. 노튼(Norton, 1984)의 논문 「환경윤리와 약한 인간중심주의(Environmental Ethics and Weak Anthropocentrism)」를 참고할 것을 권유한다.
- 주 7. 알렌 칼슨(Carlson, 1984)의 '긍정 미학'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논문 「자연과 긍정미학(Nature and Positive Aesthetics)」을 참고할 것을 권유한다.
- 주 8. 허무주의는 본래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체계가 새로운 제도가 설립되기 전에 파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세기 당시 이 용어는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정치적 의미는 상실되고 삶의 무의미, 도덕적 허무주의 등으로 윤리 철학적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였다.
- 주 9. 토대주의는 도덕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직관'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도덕적 불일치를 야기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이유는 '도덕적 사실'은 대상 자체와 독립적이기 보다는 자연적 속성 내지 사회적 관행에 수반하여 도덕적인 것이 비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Kim, 2003: 221-238). 최근 현대윤리학은 실천윤리학에 기반하여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주 10. 피터 싱어가 존재론을 비판한다고 해서 환경 보전철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환경 철학을 실천 철학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과거 윤리를 비판한 것일 뿐이다.
- 주 11. 현재의 환경미학에 대한 다양한 흐름에 대하여 정리한 김문환의 논문 「자연미학의 전개과정과 현재적 의의」 중 'IV 장 자연미학의 현대적 전개(Kim, 2001:86-104)'를 참고할 것을 권유한다.
- 주 12. 박상혁(Park, 2007)은 도덕과 예술작품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극단적 도덕주의'에 문제를 제기한다. '극단적 도덕주의'란 도덕적으로 좋은 작품은 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모든 예술작품이 사회적 개인적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차원만으로 예술을 평가하는 것은 예술의 자율성과 중립적 영역을 훼손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주 13. 레오폴드는 사냥은 생명을 가해하는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규정하고 개체수 조정을 위해 자연을 보존한다는 사냥의 논리에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Leopold, 1949:207-229).
- 주 14. 여기서 'stewardship'은 존 패스모어의 '집사로서 의무'와 다른 것이다. 존 패스모어의 'stewardship'은 서양 전통의 기독교적 자연관을 지칭한 것이지만, 사우만의 'stewardship'은 타자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환경 또는 자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 또는 서비스 정도로 의미할 수 있다.

References

- Beathely, Timothy(1994) Environmental ethics and the field of planning: Aternative theories and middle-range principales, in Huw Thomas(ed.) Values and Planning, Addershot: Avebury, pp. 12-37.
- Callicott, J. Barid(1980) Animal liberation: A triangular affair, Environmental Ethics 2: 311-338.
- Callicott, J. Barid(1984) Non-anthropocentric value theory and environmental ethic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1: 299-309.
- Callicott, J. Barid(1993) Introduction, in Zimmerman M. E. (general ed.)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 3-11.
- Callicott, J. Barid(2008) Leopold's land aesthetic, in Allen Carlson and Shela Lintott(eds.) Nature, Aesthetics and Environmentalism: From Beauty to Du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05-118.
- Carlson, Allen(1984) Nature and positive aesthetics, Environmental Ethics 6: 5-34.
- Cooper, David E.(2006) A Philosophy of Gard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 Grange, Joseph(1992)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 by Eugen C. Hargrove, Philosophy East and West 42(1): 175-177.
- Hardin, Garrett(1968)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 Hargrove, Eugene C.(1988)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 김형철(역) 환경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4.
- Hargrove, Eugene C.(1992) Weak anthropocentric intrinsic value, Monist 75(2): 182-208.
- Harvey, David(2000) Space of Hope, 최병두 · 이상을 · 박규택(역)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서울: 한울, 2001.
- Johnson, Mark(1993)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노양진(역) 도덕적 상상력: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파주: 서광사, 2008.
- Kim, Kuk Hyun(2006) Cultivating moral imagination and mor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61: 193-225.
- Kim, Kwang Tae(2011) The is-ought debate and the definition of moral -Focused on Peter Singer's ethical theory-,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4: 143-162.
- Kim, Moon Hwan(2001) Historical developments of aesthetics of nature and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In its relation with the foundation of environmental aesthetics-,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30: 35-115.
- Kim, Nam Joon(2009) Naturalness as criterion of moral judgment -Nature, naturalness and naturalistic fallacy-, Environmental Philosophy 8: 225-260.
- Kim, Sang Deuk(2003) The is/ought distinction and moral realism,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61: 221-238.
- Kim, Sun Kyu(2011) Ontology of artworks and critic of aesthetic consciousness, Studies for Hermeneutics 27: 111-142.
- Leopold, Aldo(1949) A Sand County Almanac, and Sketches Here and There, 송명규(역) 모래 군의 열두 달: 그리고 이곳 저곳의 스킷치, 서울: 따님, 2000.
- Meyer, Elizabeth K.(2008) Susta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6-23.
- Mun, Dong Kyu(2004) Das Seinsdenken Heideggers und der ontologische Grund der Umwelt-Ethik, Journal of 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32: 83-111.
- Nassauer, Joan Iverson(2008) Cultural sustainability: Aligning aesthetics and ecology, in Allen Carlson and Shela Lintott(eds.) Nature, Aesthetics and Environmentalism: From Beauty to Du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363-376.
- Norton, Bryan G.(1984) Environmental ethics and weak anthropocentrism, Environmental Ethics 6: 131-148.
- Park, Sang Hyuk(2007) Can a morally bad work of art be an aesthetically good work of art?,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50: 115-138.
- Passmore, John(1974)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Ecological Problem and Western Traditions, London: Gerald Duchworth.
- Schauman, Sally(1997) Beyond stewardship toward partnership, in George F. Thompson & Frederick R. Steiner(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239-262.
- Shin, Hyun Woo(2012) A study on the moral imagination as motivational factor of mor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87: 186-203.
- Singer, Peter(1973) The triviality of the debate over 'is-ought' and the definition of 'moral',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0: 51-56.
- Song, Myung Gyu(1994)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philosophy (1): Environmental ethics,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19(2): 79-109.
- Song, Myung Gyu(1998) Aldo Leopold's land ethics,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6(1): 39-71.
- Taylor, Paul W.(1986) Respect for Nature: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pson, Ian H.(1998) Environmental ethics and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ory, Landscape Research 23(2): 175-194.
- Walker, Peter and Melanie L. Simo(1996) Invisible Gardens: The Search for Modernism in the American Landscape, Cambridge: MIT Press.
- Zimmerman, M. E.(1993) General Introduction, in Zimmerman M. E. (general ed.)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 v-x.

Received : 19 January, 2015

Revised : 12 February, 2015 (1st)

7 April, 2015 (2nd)

Accepted : 7 April, 2015

3인익명 심사필